

디자인의 가치를 버려라: 노자의 곡신(谷神)과 현빈(玄牝)을 중심으로

Dismiss the Value of Design: Focusing on Lao-tzu's Concepts of the Valley Spirit and the Mysterious Female

김현주(공프레스)
Kim Hyunzoo (Gongpress)

1. 서론: 실체와 관계로 본 디자인의 가치 설정
2. 빈(虛)이라는 현상의 시작과 씀(用)의 과정
 - 2.1. 노자의 무위(無爲)와 무불위(無不爲) 그리고 유위(有爲)
 - 2.2. 불교의 공(空), 무의 궁극적 실재와 관계
 - 2.3. 매개라는 능동적 행위주체성
3. 생명의 순환, 곡신(谷神)과 현빈(玄牝)의 배리어프리
4. 결론: 디자인을 위한 생성의 방향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2년 1월 3일
심사일. 2022년 1월 20일-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19일

Received Date. January 3, 2022
Reviewed Date. January 20-February 14, 2022
Accepted Date. February 19, 2022

요약

디자인은 '내가 세계를 인식하는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이며 그 생각이 물질화된 삶과 가장 가까운 것이 사물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대중이 아니라 다중으로 연결된다. 은미(隱微)한 작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다중의 사회, 나노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량(大量)생산이 아닌 다양(多様)생산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고 있다. 이 다양성에 관한 접근을 기존의 인과성에 따라 맥락을 추적하는 과정, 즉 기능과 형태로 대변되는 디자인의 가치 틀 앞에 다른 발상의 장(場, field)을 놓는다는 의미로 보고 이를 노자에 접목해 보았다. 특히 '비어있는 어떤 것을 채움'이 아닌 '비어있게 만드는 채움'이라는 '무위'와 '무불위'로 생각의 방향을 세우고, 그 생성의 근원을 '곡신', '현빈'이라는 개념을 통해 논하였다. 이는 단순히 언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적 발상이 아닌 생성의 시작점을 무한하고 가물한(玄) 심연으로 놓고 상승과 하강을 통해 생각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미지 발상'이다.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의 공익성과 함께 '은미(隱微)한 네트워크'라는 다중의 디자인으로 가는 길 위에서 건네는 제안이다.

Abstract

Design refers to the design of thoughts in which I perceive the world as well as objects that are closest to life in which the thoughts are materialized. To be clear, the world is not connected with the public but with the multitude. As we move into a society of the multitude that consists of networks of subtle and small communities (a nano-society), it is not mass production but indeed diverse production that is required. This approach to diversity places a different field of ideas before the existing process of tracing the context based on causality, that is, the value frame of design represented by function and form. In that sense, Lao-tzu's concepts were drawn upon for this study. In particular, I turned the direction of my thoughts to Lao-tzu's famous proverb—"To do nothing yet nothing is left undone." In other words, it means filling something to allow emptiness in it rather than simply filling something empty. I then discussed the source of that creation through Lao-tzu's concepts of the valley spirit (gushen 谷神) and the mysterious female (xuanpin 玄牝). This is not an analytic idea that simply approaches the dimension of language, but an image idea which sets the starting point of creation in an infinite and mysterious abyss, and lets thought circulate through ascent and descent. This is a proposal on the way to the multitude's design called a "subtle network," which goes along with the public interest of barrier-free (universal) design.

‘굿디자인’에 대한 기준 또한 ‘마케팅’과 ‘소비’에 깊이 연관된 영역이고, ‘교육’은 제작 단가와 효율을 위해 분화된 노동력의 생산과 계급 상승을 위한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지 오래다. 이와 같은 산업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인한 엔트로피⁴의 상승은 결국 무질서로 귀결될 뿐이다. 문제는 디자인 주체가 가지는 ‘인식’이다. 디자인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생각을 전개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가치를 위한 생각의 방식을 살펴보자. 우리는 대개 세계를 ‘실체’와 ‘관계’의 관점으로 본다. 다르게 분류하면 ‘가치’와 ‘사실’로 나눌 수도 있다. 모더니즘은 실체(본질)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더니티에 대한 논의도 실체(본질)를 인정하게 되면 가치론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한 ‘본질’이라는 말에는 무엇보다 최초 혹은 전제의 의미가 있다. 결국, 이 ‘최초의 전제’라는 생각이 확장되면서 기준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본질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춰 평가라는 잣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평가가 바로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므로 본질주의는 가치론으로 보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Rene Descartes)의 제1 명제는 ‘실체론’적 입장이며 이 시각으로 보면, 실체가 존재하도록 하는 특정한 성질을 근거로 한다. 그 성질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위 명제의 실체는 ‘나’라는 인간이요, 본질은 ‘이성’이 된다. 이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존재는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론은 다르다. 노자는 ‘유무상생의 존재형식’으로서 ‘유(유위)’와 ‘무(무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무는 무 자체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계(system)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변화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 열역학제일법칙은 곧 에너지보존법칙이며,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클라우지우스(R. Clausius, 1822-1888)가 1850년대 초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고안하였으며, 엔트로피의 도입과 더불어 열역학 제2법칙이 성립되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열역학적으로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상태에 도달할 것이며, 이 상태는 어떠한 자발적 운동이나 생명 등이 유지될 수 없는 극단적인 무질서(극대점)의 상태로, 우주의 열역학적 종말을 뜻한다. 이 상태를 열죽음(heat death)이라고 부른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소립자로 분해되고 사방이 구분되지 아니하며, 넓은 우주 공간에 소립자만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게 된다.

존재 근거로 하여 존재하지 않고, 유는 유 자체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존재 근거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무는 그의 대립 면인 유와의 관계에 의해서 무가 되고, 유는 그의 대립 면인 무와의 관계로 유가 된다.⁵ 대립 면과의 상호관계, 이것이 바로 노자의 ‘도’이며 관계론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실체(본질)론은 주관적 혹은 사회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가치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이 되면 결국 폭력적인 배제와 억압이 함께 작용한다.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이런 분리된 영역을 타파하고자 융합 혹은 매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배리어프리(barrior free)’⁶라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미디어의 다양성으로 일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인간 경험의 매개적, 경로적 특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통한 ‘디자인 직관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 전체 구조 -특히 교육 체계- 의 변화 없이 도구의 결합만으로 ‘자본의 가치’라는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도구적 결합과 적용은 대체로 ‘기능의 향상’이라는 한 방향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의미 속의 가치론적 판단을 덜어내는 작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어서 현대의 왜곡된 가치의 기준을 벗어나 관계론을 지향하는 담론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가치체계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노자를 중심으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며 상생하는가에 관한 원리를 풀어보려 한다.

5 최진석, 『생각하는 힘-노자 인문학』, (위즈덤하우스, 2015), p.115

6 배리어프리(barrior free):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의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생산효율 지상주의의 결과물을 제거하여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축소/제거하는 개념으로 장애와 연령, 성별, 인식, 제도와 문화, 정보 등의 모든 차별의 장벽(barrior)을 없애자는 디자인이다.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맥을 같이 한다

7 이석명, 『백서 노자』, (청계, 2006), p.452: 노자, 11장 三十輻 共一轂 / 當其無 有車之用 / 埴埴以爲器 / 當其無 有器之用 / 鑿戶牖以爲室 / 當其無 有室之用 / 故有之以爲利 / 無之以爲用

2. 빔(虛)이라는 현상의 시작과 씬(用)의 과정 2-1. 노자의 무위(無爲)와 무불위(無不爲) 그리고 유위(有爲)

노자의 무위는 이런 틀에 갇힌 가치 기준을 덜어내고 세계를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다. 무위란 어떤 선제적 판단도 개입되지 않은 사실(관계)의 철학이다. 가치를 덜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아낸다. 일반적으로 무는 없음, 부재, 상실, 결핍 등의 주로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노자 철학에서는 앞에서 말했듯 유와의 상생을 통한 모든(우주의) 현상이다. 노자의 『도덕경』 11장은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다. “반방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고, 바퀴 통 속의 빔이 있어야 수레의 쓰임이 있고 그릇의 빔이 있어야 그릇의 쓰임(用)이 있다…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⁷ 이 장은 유에 빚대어 무가 쓰임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에서 무의 쓰임은 대체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였다. 이는 모더니즘 디자인에서 강조했던 “기능은 형태를 앞선다”는 기능이 선제된 논거이면서 논어의 씬을 오독하는 인용으로 보인다. 근현대의 목적론적 디자인이 의미와 관계에 앞서 전개되는 양상은 산업과 소비에 발달춰 끊임없이 외관을 바꾼다. 그렇다면 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논어가 말하는 무의 존재론은 허(虛)를 근거로 둔다. 존재는 그가 허를 용(用)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존재이게끔 하는 어떤 사용에 의하여 존재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용에 공통된 것은 무엇일까? 만물의 공통된 사용을 노자는 바로 빔, 즉 허라고 부르는 것이다.⁸

8 이석명, 같은 책, p.420: 老子道德經 中, 四章: 도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어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 / 그윽하도록! 만물의 으뜸 같도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푸는도다. / 그 빛이 뚜렷 남아 없게 하고 그 티끌을 고르게 하네 / 맑고 또 맑아라! 저기 있는 것 같네.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 하늘님보다도 앞서는 것 같네. 道冲而用之 或不盈 / 淵兮 似萬物之宗 /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 湛兮 似或存 / 吾不知誰之子 / 象帝之先

1. 서론: 실체와 관계로 본 디자인의 가치 설정
디자인은 인간의 삶의 필요와 목적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는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단순한 대중의 미학을 넘어 인간의 근본적인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디자인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도 같은 맥락이다. 살펴보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은 디자인되어 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의류부터 사용하는 물건, 주거하는 공간과 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디자인된 인공물이다. 태어나 먼지가 될 때까지 인간의 삶과 관계하는 거의 모든 것은 사물이다. 인간이라는 지평 위에 사물과 타자, 그리고 그에 대한 관계가 우리를 이룬다는 철학적 사유에 비추어 보면 존재는 디자인과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디자인하면 어떤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내고, 공간을 분리해 기능적으로 ‘조형’하는 행위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양사상으로 말하자면 사물(things)은 존재하지 않는 기의 집체적이며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무아(無我)’, 즉 자기 동일성을 지니는 실체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아의 ‘것’들을 디자인한다는 말은 부적절하다. 디자인이란 결국 내 생각의 디자인이다. 내 생각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의 디자인인 것이다.² 이렇게 디자인은 일련의 목적에 맞춘 인식의 치밀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물질로 엮어내는 행위로서 인간에게 결핍된 지점을 채우는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

근대와 모더니즘의 틀에서 디자인은 기능과 형태³로, 교육은 실무와 지식(정보)으로 나누어 끊임없이 자본의 잣대로 이분적 가치를 설정해 왔다.

1 빅터 파파넬, 『인간을 위한 디자인』, 현용순·조재경, (미진사, 2009), p.27: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디자인이다.

2 김용옥, 『논어21세기(1)』, (통나무, 1999), p.22

3 설리번(Louis H. Sullivan) -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형태는 전례를 따른다”는 고전적 이념에 도전장을 내민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이었다. 이 명제는 기능이 변화하면 형태도 변한다는 의미.

4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 이창희, (세종연구원, 2000), pp.52-57: 엔트로피(Entropy) - 열역학 제2법칙이며, 자연현상의 물질의 상태 또는 에너지 변화의 방향을 설명해준다. ‘무질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체

물론 사용이라는 것을 기능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용(用)은 물건의 쓰임을 말하고, 능(能)은 물건의 '구실'을 말한다. 노자의 용은 허가 구실이 되는 측면이 아닌, 씬 자체를 통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라는 것을 공간으로 규정짓는 즉시 이는 '사고의 고체화'로 이어져 구실, 즉 기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허는 공간의 개념으로 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자에게는 공간이라는 기하학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자 철학에는 공간이 없다. 그러므로 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노자에게는 공간은 없고 기(氣)만 있다. 사실 노자에게 있어서 허라는 것은 기의 한 양태에 불과하다. 공간이 먼저 존재하고 그 공간 속에 허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허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간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측면이다.⁹ 우리는 빔을 결과론으로 해석하여 공간과 기능으로만 논하였으나, 빔이라는 현상의 '시작'과 씬의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자는 빈 그릇을 채우려는 인간의 행위를 ‘유위’라고 한다. ‘유위’란 곧 존재에 있어서 ‘허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행위, 즉 빔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행위를 바로 ‘무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무위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爲)가 아니라는(無) 뜻이다. 노자가 말하는 ‘함미 없음’이란, 함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백하게 함의 대상(목적)으로서의 ‘함미 없음’이다. 무위(無爲)란 곧 위(爲)의 부정이 아니라 위(爲)의 긍정이다. 그것은 위(爲)의 부정으로서의 무위(無爲)가 아니라, 곧 무적(無的)인 위(爲)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함미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무위(無爲)를 위(爲)해야 하는

것이다. 무위(無爲)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 무위는 노자 사상 곳곳에 쓰인다. 3장에는 爲無爲(위무위) 則無不治(즉무불치), 37장에 道常無爲(도상무위) 而無不爲(이무불위) “도(道)는 항상 함미 없음으로 곧 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의미로, 48장에는 무위(無爲), 이무불위(而無不爲) 그것을 ‘도(道)’라하여 “함미 없음에 이르게 되면 곧 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라고 말한다. 여기의 무불위(無不爲)는 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지 다 잘된다는 뜻이다. ‘무위’와 ‘무불위’는 형식 논리적으로 반대의 뜻이지만 이 반대 상황은 곧 일치되는 맥락에 놓이게 됨으로써 서로의 뜻을 명료하게 해주고 보강해 준다.”¹⁰

이처럼 ‘무위’는 ‘함’과 ‘함미 없음’이 동시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영화 <버닝>에서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놓고, 실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위와 함께 자주 쓰이는 ‘자연(自然)’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 모든 존재, 만물(萬物)의 존재 방식을 기술하는 말이며 그 존재의 방식이 ‘스스로 그러함’, 그것이 자연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함은 바로 만물의 존재 방식이 허가 유지될 때 스스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다. 스스로 그러하지 못함은 그 허를 채워버리는, 그 비어있음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방향으로의 유위, 인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함미 없음(무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빔’을 유지하는 ‘함’이요, 그 빔을 유지하는 함미야말로 바로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이다. 이것은 모든 존재를 스스로 그러하게 내버려

9 김용옥, 같은 책, p.187

10 김용옥, 같은 책, pp.164-167

둘 때, 스스로를 유지한다고 하는 의미, 즉 57장에, 애써 바로잡지 않아도 저절로 잘 고쳐져 나가는 ‘無爲而化(무위이화)’¹¹라고 한다. 그래서 빔(虛), 함미 없음(無爲), 스스로 그러함(自然), 씬(用)은 모두 같은 것이며 함께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교육가는 다 같이 이 무위이화를 지향하고 있다.

2-2. 불교의 공(空), 무의 궁극적 실재와 관계

이를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는 말로 접근한다. 『반야심경』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인 ‘업(業)’이 쌓여 만든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을 깨닫고 해탈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삶의 진실, 즉 ‘실상(實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상을 모르면 어리석은 상(相)을 짓게 된다. 집착의 상태를 만들게 되어 사실을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는 업(業)을 쌓게 되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음,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노자의 자연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런 비움은 ‘공(空)’과 연결된다. 불교에서는 이 공을 세계의 존재형식을 표현하는 개념이나 실재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공을 세계의 본체 내지는 근거처럼 실재하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을 비판한다. 그래서 이 ‘공마저도 부정해야 한다는 공공(空空)’은 비판을 심각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 어떤 감각, 어떤 의지, 어떤 행위, 어떤 인식도 모두 ‘본무자성(本無自性)’¹² 즉 이 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벗어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공이라는 개념은 논리적인 개념일 뿐이며 실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¹³

공은 소극적인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인 무(無)를 말한다. 고정적 실체를 부정하고 그것의 결여, 오히려 ‘존재하지 않음’이 공인 동시에 그 공에서 궁극적인 실재가 발견된다. 이는 노자의 무위와

11 이석명, 같은 책, p.183: 노자, 57장 내가 하는 것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화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백성은 스스로 바르게 된다. 내가 일없이 있으면 백성은 저절로 잘살게 되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我無爲 而民自化 / 我好靜 而民自正 / 我無事 而民自富 / 我無欲 而民自樸)

12 본무자성(本無自性): 공은 텅 비우는 게 아니라, 자성을 근거로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 없이 존재한다는 의미

13 최진석, 같은 책, p.187

무불위의 상보 관계와 유사하다. 모든 관계는 공 혹은 허에서 시작되며 인간의 실체로서 ‘자아’는 없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며 만물의 존재는 모두 ‘인연(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니 실체가 아니라는, 고정됨이 없는 ‘발 없는 발, 길 없는 길’, ‘텅 빈 충만, 생성의 빔’을 말함이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주체와 객체, 존재와 비존재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로 본질이 아니라 관계의 생각이다.

2-3. 매개라는 능동적 행위주체성

디자인의 영역에도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디자인은 사회와 개인의 요구에 의해 기능과 형태, 상징을 넣는 유위의 행위이지만, 그 행위는 또한 비움을 동반한 무위의 허(虛)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디자인은 ‘몸과 밀착된 예술의 직관적 사용’이다. 몸이 다가갈 수 있도록 끌림을 만드는 일도 바로 허(虛)가 하는 일이다. 모든 이에게 장벽을 허무는 개념과 실천의 디자인 ‘배리어프리’와 의미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리어프리는 건축 장벽을 중심 주제로 건축 전문가가 사용하던 용어지만, 근대의 가치였던 효율과 자본, 이성이 배제하고 억눌렀던 장(field)과 계급의 인식 장벽을 타파하는 디자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반영(reflection)’과 ‘매개(mediation)’의 개념을 함께 논할 수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디자인은 ‘인간 삶의 필요와 목적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물’이지만 그 필요와 목적은 사회 현실 세계, 즉 삶의 행위를 ‘반영’¹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히 표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본성이나 형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현실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적 삶의 생산과 재생산’이고 오늘날에는 흔히 ‘토대’라는 말로 표현되며, 예술이 그 ‘상부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¹⁵면서 이 구조에서

14 일레로 제시, 행동유도성 디자인(affordance design)이라 불리며 대상의 어떤 속성이 유기체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특정 행동을 쉽게 하게 하는 특성을 말한다. 하라 겐야(原研哉)와 후카사와 나오토(深澤直人)는 이를 ‘행위에 스며드는 디자인’이라 하여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착안하여 제품디자인에 적용한다.

15 레이몬드 윌리엄스,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지만지, 2013), p.194

현실을 왜곡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고, 이는 예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자인은 그 구조 속에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영역에 직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반영의 함정은 물질로서의 사회적 과정, 즉 노동을 은폐하고 이론화하여 반영으로서의 예술과 디자인을 장르와 영역으로 틀 지운다는 데 있다. 그러나 유사해 보이지만 매개는 능동적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정반대의 사물들을 하나의 총체 속에서 조화를 유도하는 화해의 개념이다. 극단의 힘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매개는 분리된 행위들 사이의 간접적 연결 고리나 ‘행위주체성(agency)’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접적(mediate)’인 것과 ‘직접적(immediate)’인 것의 구분이 이루어졌다.¹⁶ 액면으로 본다면 매개는 사회적 현실이 투영되거나 가장되어 있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매개를 긍정적으로 파악했는데 이는 대상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윌리엄스는 반영이론의 수동성을 극복한 매개가 현대와 와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재적 구성’으로 해석되지만, 이것으로 매개의 작용을 한정 지으면 이 또한 수동적인 수단으로 되돌아갈 뿐이라고 윌리엄스는 말한다. 그렇다면 매개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 매개는 반영이나 ‘의미화’는 아니며, 필연적이고 실질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도 오히려 개념을 규정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매개는 능동적 행위주체성이며 자유 혹은 생성의 바람, 혹은 있음과 없음의 동시성으로 노자의 무위(無爲)와 연결 지을 수 있겠다.

16 레이몬드 윌리엄스, 같은 책, p.198

17 이석명, 같은 책, p.420: 노자, 6장 골짜기처럼 비어있는 것의 신령함은 영원하다. 이것을 까마득한 만물의 어미 즉 현빈이라 부른다. 이 현빈의 문은 천지의 뿌리라 부른다. 이는 면면히 이어지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듯한데 아무리 만물을 낳아도 수고롭지가 않다.(마르지 않는다) (谷神不死 是謂玄牝 / 玄牝之門 是爲天地根 / 綿綿若存 用之不勤)

18 다석 유영모(柳永模), 대한제국기 양평학교 교사, 오산학교 교사, 오산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 종교인. 『다석일지』, 『노자』를 저술하였다.

3. 생명의 순환, 곡신(谷神)과 현빈(玄牝)의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나 매개 두 개념 모두 내적, 외적 경계나 턱을 없애고 새로운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노자가 생성을 위한 생명의 순환이라 주장한 ‘곡신(谷神)’을 떠올리게 한다. 노자 6장에는 시적인 내용¹⁷이 등장하는데 곡신은 우주의 기가 발출하는 신묘한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곡’은 계곡의 중앙 혹은 기른다는 뜻이며 ‘신’은 ‘다섯 장기의 신’이라고 해석하거나, 곡은 비었으나 응하는 것이고 신은 묘하고 예측불허한 것이라는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그중에 ‘계곡의 신묘함’이 중론으로 읽힌다. 노자는 그 신묘함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계곡의 쓰임과 아름다움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라 한다. 솟아오른 봉우리보다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계곡이 더 본원적이며, 이를 곡신, 즉 ‘현빈(玄牝)’이라 칭한다. 현빈은 ‘검은 어미’라고 풀 수 있는데 ‘다섯(多夕)’¹⁸은 이를 단군신화의 ‘검(熊, 곰, 웅)’으로 해석하였다.¹⁹ 곰의 어원은 ‘검은 하늘’이라는 뜻이었으며 ‘감’, ‘곰’, ‘김’, ‘굶’으로 소리가 바뀌었다.²⁰ 이와 관련된 상징체계들이 노자가 말하는 곡신, 현빈, 골검과 의미 상통하는 것이다.

현빈에서 ‘현(玄)’은 심원하고 극한이 없는 깊은 골짜기의 심연이거나 아득하여 볼 수 없는 우주의 미묘함을 말한다. 중국의 과학사상가 장형(張衡)은 “‘현(玄)’은 형상 없는 부류이며, ‘저절로 그러함’의 ‘뿌리’이고, ‘태초의 시작’을 지어내지만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기도 했다.²¹ 이는 발생의 모태인 ‘여성’ 혹은 ‘여신’으로서 여성의 그것이 ‘우주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생성’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골을 채우고 있는 그것은 바로 허이다. 골은

19 김용옥, 같은 책, p.262

20 윤구병, 『내 생애 첫 우리말』, (천년의상상, 2016), p.124: 환인의 아들은 환웅, 환한 수컷이다. 태양신이다. 우리말로 하면 해. 이 햇빛이 하늘 아래로 내려온다. 비, 구름, 바람, 번개, 천둥 같은 신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이 신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이다. 이 햇빛이 곰을 만난다. ‘김’은 하늘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감’으로도, ‘곰’으로도, ‘굶’으로도, ‘김’으로도, ‘곰’으로도 소리가 바뀐다. 또 이것이 ‘개마’, ‘고마’, ‘구마’, ‘구미’, ‘곰와’, ‘기미’로도 가지를 친다. 우리나라 토박이 성씨 가운데 ‘김’ 역시 하늘을 가리키는 ‘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주 김씨 시조로 알려진 ‘김일지’는 성이 ‘김’,

허의 상징이다. 이 허란 기하학적 공간이 아니요, 아득한 심연이면서 ‘생성의 빔’인 것이다. 이 현(玄)은 ‘뿌리’로도 볼 수 있다. ‘뿌리’는 까맣다. 생명의 시작이요, 기원의 비롯함이다. 기원은 검다. 단군신화의 하늘을 뜻하는 ‘검’은 가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신령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검을 현을 써서 ‘현묘(玄妙)’라 칭한다. 이런 여성의 기운에 무위와 생성이 결합하여 비롯한 힘(현빈)을 ‘수운’²²은 ‘한울님(하느님)’이라고 했다. 이 한울님 혹은 하느님의 의미 또한 노자가 계속 주장해왔던 빔이요 무형의 기운이다. 즉 신령스러운 우주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精)에 대한 신(神)이요, 땅(地)에 대한 하늘(天)이요, 백(魄)에 대한 혼(魂)이요, 혈(血)에 대한 기(氣)요, 유형에 대한 무형이다.²³ 이것이 없음에서의 있음, 있음에서의 없음이 되는 것이다. 곧 무한한 생명의 힘이며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홍성주는 현빈을 “은미(隱微)하여 알 수 없는(…) [微而不可見 미이불가견]([『訂老』)이라 하며 실체가 없는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중심으로 표현한다.²⁴ 비움과 소멸로 생성과 채움이 있고, 변화가 있어 지속이 형성된다는 상반된 개념을 한자리에 놓아 ‘동시적인 존재 되기’를 실현한다.

현빈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진 여성의 생식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해부학적 생식기가 아닌 텅 빈 잉태의 장으로 현묘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암컷 되기’는 곧 세상 만들기이며, 새로운 미래 세계를 창조하는 운동”²⁵ 이다. 역동적인 실체로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힘이다. 노자에 의하면 “현빈의 문이, 천지의 뿌리임(玄牝之門, 是謂天地根)”²⁶으로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지점은 문이나 뿌리는 현빈을 대표하는 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과 뿌리는 본디 실체 없는 이미지, 개념 없는 빔이다. 이렇듯 경계가 없음으로써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알지’가 아니라 ‘김’의 ‘알지’, 그러니까 하늘의 아기(알지→아자→아기), 한자로는 천자(天子)를 뜻하는 말이다.

21 탁양현, 『『노자』에서 ‘玄’字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60집, (동양철학연구회, 2009) p.194

22 수운 최제우(崔濟愚, 1824-1864): 동학의 창시자. 조선 철종 때인 1860년에 창시하여 서양의 학문이나 종교를 뜻하는 서학에 반대하며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동학의 의미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人乃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라는 가르침이다.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제도를 없애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의

무한히 생성되는 곡신이자 현빈은 바로 배리어프리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실체와 개념의 전제 없이 사유를 시작하는 ‘문’인 것이다. 그렇게 노자 철학은 ‘해체’를 전제한다. 위아래, 좌우 없이 모두 심연에 놓는 것이 새로운 발생의 시작 조건이기 때문이다. 노자의 사유방식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알고 몸과 무의식의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변화하는 지속, 생성을 위한 사유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의적 디자인을 무위화하고, 공(空)할 수 있는 방향은 가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버리는 쪽으로 가야 하겠다. 교육받은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가치와 보편, 객관 같은 인류세(人類世)의 한계가 보여주는 수많은 항목을 이제는 절제하고 심연의 허(虛)를 들여다봐야 한다. 단순히 가치의 소멸이나 해체가 아니라 이를 동반한 무한한 생성이라는 ‘발생’의 차원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 곡신과 현빈은 디자인이 자본, 산업과의 결탁으로 가져오는 낭비와 파괴에 대한 욕망의 해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욕망을 사유하는 방식에 관한 새로운 모티프이기 때문이다.

4. 결론: 디자인을 위한 생성의 방향

원정근은 노자의 철학에 대해 “(…) 도가(道家) 철학은 우리의 통상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을 포함한 존재의 참모습을 ‘논리 아닌 논리’의 방식으로 설명하려 한다. 논리를 구사하는 자와 논리로 규정되는 자의 이분법적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논리가 더는 필요 없는 역설적 논리를 펼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도가 철학의 논리이다.”²⁷ 라는 말로 이제 ‘동일(unity)’이 아닌 무수한 관점의 접근이 현묘히 함께 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한다. 이를 디자인에 적용한다면 디자인에서의 목적론과 사후적 분석을 극복하기 위해 곡신과

인격을 존중하는 평등한 사상을 추구하였다.

23 김용옥, 같은 책, p.261

24 탁양현, 같은 논문, p.207

25 장시기, 『노자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 (당대, 2005), p.126

26 김용옥, 같은 책, (통나무, 1999), p.256


27 원정근, 『도가 철학의 사유방식』, (법인문화사, 1997), p.7

현빈이라는 발생의 사유가 ‘공동체(共同體)’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는 네그리(Antonio Negri)의 말처럼 ‘대중’이 아니라 ‘다중’으로 연결된다. 단일한 지도부를 가지지 않고 물질이 아닌 가치를 생산, 공유하는 개방, 수평, 참여, 분산 네트워크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를 공유, 스스로 학습하고 다시 자신이 자발적인 유포자가 되는 거대한 선순환 네트워크이다. 자신들만의 아젠다로 기획하고 프레임을 구축해 대중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전통미디어를 제압한 21대 총선이나 ‘촛불혁명’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다중의 힘이다. 코로나 19를 관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중을 넘어 ‘나노’로 향하고 있다. ‘은미(隱微)’한 작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다중’의 사회인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로 비대해진 권력의 ‘미시화’이며, ‘은미하여 알 수 없는’ 현빈과 같은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다.

논의를 정리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와 밀착해 있는 디자인은 인간의 삶을 위한 노동의 가치와 생활 속 조형미의 추구를 통해 발생한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산업과 욕망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윌리엄 모리스의 공예와 사회주의로는 이를 타파하지 못했다. 이념과 방법론으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방증한 것이다.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모던을 위시해 기존의 조형성과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운동장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져 있었다. 중간에 서서는 그 기울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 자본과 소비의 편이 아닌 반대편이 가진 세계와 자연, 생활의 ‘인식’과 ‘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군다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data)와 만나 GNR혁명(Genetic engineering, Nano technology, Robot engineering-AI)²⁸이 가까운 미래 인류의 삶에 ‘특이점’으로 닥쳐온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학자들은

기술과 문화에 대한 ‘통섭(consilience)’이라는 “차이들을 승인하는 동시에 차이들을 연결하려는 인식 틀”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이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뉴미디어’의 등장은 너무나 빈번하다. 이런 빠른 흐름을 쫓다 보면 자본의 틀을 생각하기도 전에 기술이라는 도구의 틀 안에 갇힐 확률 또한 높다. 그래서 더욱 인식의 확장과 유연함이 요청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디자인은 무위(無爲)와 무불위(無不爲) 그리고 유위(有爲), 즉 빚과 채움의 사용이 몸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매개이자 시대를 드러내는 문화다. 그래서 생활과 밀접한 ‘행위’이자 ‘실천’으로 ‘삶’을 고스란히 품는다. 디자인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분적 사고와 류(類)로 구분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노(nano) 사회’라는 사회문화 현상의 ‘미시성’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고전의 사유, 현묘(玄妙)한 곡신(谷神)의 이미지를 빌려 근원적 ‘발상’을 시도한다. 현빈의 검은 골짜기에서 내부 인식의 양적 발생(생성)뿐 아니라 외부 감각을 통한 무위(無爲)를 위(爲)하는 실천(practice)의 ‘질(質)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포문화한 가치가 아니라 ‘무수한 생성’으로 가는 다른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28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장시형·김명남, (김영사, 2007), p.277

참고문헌

- 강승환, (2015), 『죽음이란 무엇인가- 불교의죽음관』, 운주사
- 김용옥, (1999), 『논어 21세기(1)』, 통나무
- 김용옥, (2021), 『동경대전』, 통나무
- 원정근, (1997), 『도가철학의 사유방식』, 법인문화사
- 윤구병, (2016), 『내 생애 첫 우리말』, 천년의상상
- 장시기, (2005), 『노자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 당대
- 최진석, (2015), 『생각하는 힘-노자 인문학』, 위즈덤하우스
- 레이몬드 윌리엄스, (2013),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박만준, 지식을만드는지식
- 레이 커즈와일, (2007), 『특이점이 온다』, 장시형·김명남, 김영사
- 빅터 파파넥, (2009), 『인간을 위한 디자인』, 현용순·조재경, 미진사
- 제러미 리프킨, (2015), 『엔트로피』, 이창희, 세종연구원
- 천병준, (2010), 『노자철학에서 무(無)의 생성론과 기능의 철학적 고찰-노자의 『도덕경』을 중심으로』, 『동서사상』, 8집,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탁양현, (2009), 『『노자』에서 ‘玄’字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60집, 동양철학연구회